



## 최희섭 야구인생 '병살타'

KIA 타이거즈 최희섭의 2012시즌이 불투명해졌다. KIA가 16일 "넥센과의 트레이드 논의를 끝냈다"고 밝히면서 논란 속에 진행된 최희섭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트레이드가 무산되면서 '뜨거운 감자' 최희섭의 입지가 좁아졌다.

최희섭의 거취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복귀·트레이드·제한선수' 세 가지가 있다.

구단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팀 복귀다. 구단과의 마찰로 빚어진 일이 아닌 만큼 훈련에 복귀한 뒤에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KIA가 처음 제시했던 15일까지 최희섭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희섭이 원하는 것은 트레이드다. 지난해 최희섭은 의욕적으로 주장 역할을 맡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부상과 내부 마찰이 겹치면서 주장완장을 반납했다. 출발이 좋지 못했던 최희섭은 시즌 중에는 트위터 논란과 있던 부상과 부진 속에 팬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여러 약재 속에 최희섭은 결국 트레이드라를 탈출구로 선택했다.

### 트레이드 불발 갈 곳 없고 KIA '제한선수' 설 곳 없어

하지만 잠적사태 속에 트레이드 과정이 공개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고, 넥센과의 트레이드가 최종 결정됐다. 여기에 각 팀의 전지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도권 팀들이 속속 영입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트레이드 상황은 사실상 종료됐다.

선봉기 후트레이드로 가닥을 잡았던 KIA는 결국 최희섭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희섭의 일방적인 행보에 구단이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제한선수다.

구단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팀의 4번 타자이고 한국을 대표했던 빅리거다. 최대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선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요청을 해 공시하는 것으로 제한선수 신분으로는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또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임의탈퇴 공시가 될 경우 최소 1년간 규제를 풀 수 없는 것에 반해 제한선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수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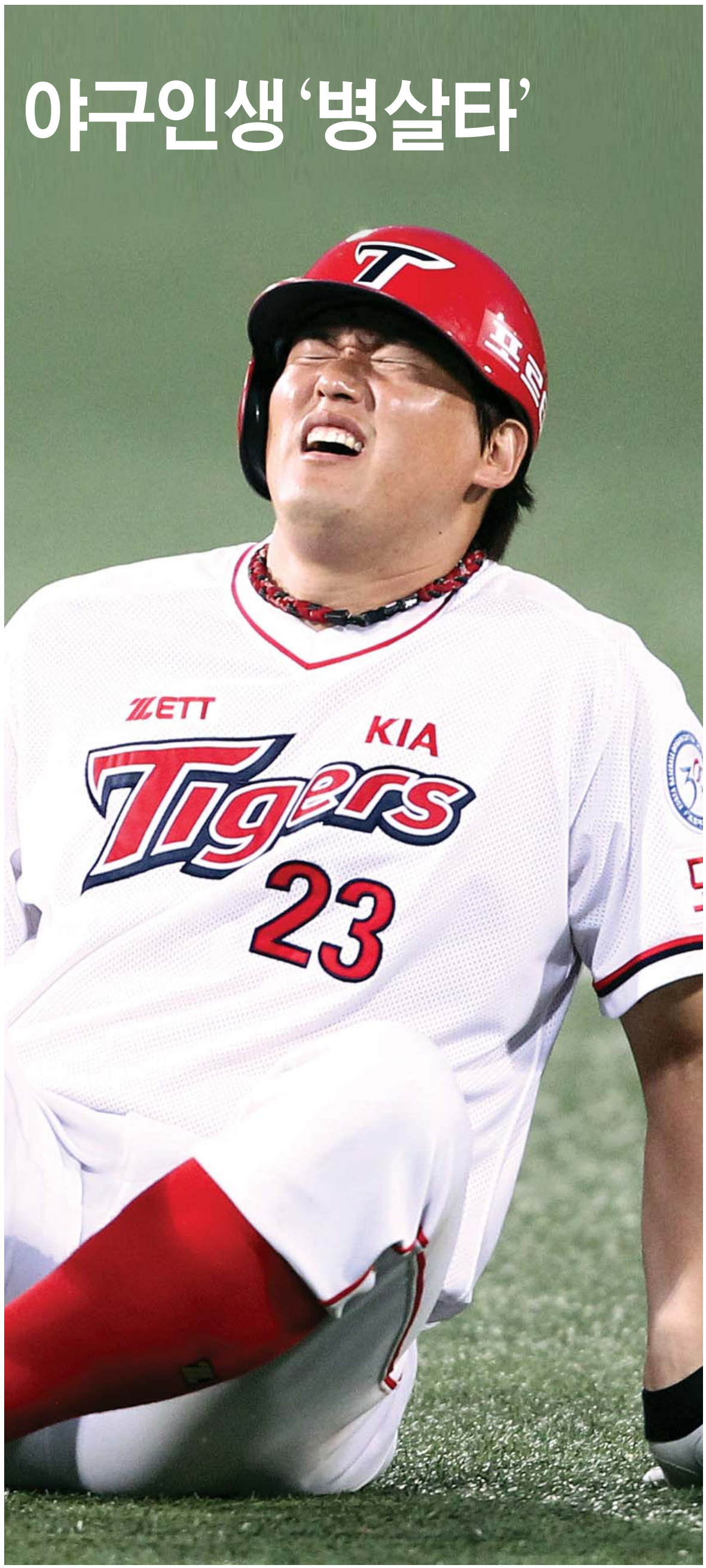
구단은 징계성이 강한 임의탈퇴 대신 제한선수를 선택해 '선수' 최희섭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KIA 입장에서도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전력에 합류시킬 수 있다.

이제 공은 최희섭에게 넘어갔다.

선동열 감독은 취임과 함께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여기에 최희섭의 몸상태에 의문을 가지면서 전력 구상에서 제외해 둔 상황이다.

비망 끝에 몰린 최희섭이 KIA 혹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서라도 그라운드에서 오르고 싶다면 전면에 등장해 선수로서의 의무를 우선으로 행사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용병 "불안하네..."

우완 선발 앤서니·좌완 불펜 알렉스 영입

### 일본에선 시원찮은 성적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좌완 듀오 구성이 불발됐다.

KIA는 16일 미국출신의 우완 앤서니 르루(Anthony Lerew·30)와 좌완 알렉스 그라만(Alex Graman·35)과 계약금 5만불, 연봉 25만불 등 총 30만불에 각각 계약을 맺었다.

선동열 감독은 당초 두 명의 좌완으로 외국인 선수 구성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좌완 물색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차선책으로 일본 무대 경험을 갖춘 '우완 선발과 좌완 불펜' 조합을 선택했다.

선발로 투입될 앤서니는 191cm의 장신으로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보냈다.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와 함께 140km 후반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지녔으며 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이저에서는 애틀랜타와 KC 로열즈에서 활동했으며 5시즌 동안 1승 7패 방어율 7.48을 기록했다. 마이너에서는 13시즌을 보내며 62승 48패 방어율 3.41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뛰었지만 주로 2군에 머물면서 1군에서는 4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역시 193cm로 장신인 알렉스는 제구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4·2005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에서 뛰면서 총 5경기에 출장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2006년 일본 세이부 라이온즈로 옮긴 알렉스는 6시즌 동안 3.82의 방어율로 13승 18패 52세이브를 기록했다. 특히 2008년에는 마무리로 뛰면서 31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2009년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고 지난 시즌에는 29경기에 나와 4.26의 방어율로 2승 1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앤서니 알렉스

## 배상문 마지막날 '와르르'... 29위로 '뚝'

### PGA 소니오픈 와그너 우승

배상문(26·캘러웨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550만달러)에서 공동 29위를 차지했다.

배상문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인근 와이알라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에 보기 4개를 기록해 3타를 잃었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가 된 배상문은 전날 공동 8위였던 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공동 29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상금왕에 오른 뒤 올해 PGA 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시즌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이번 시즌 전망을 밝혔다.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내며 최종일 역전 우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풀렸던 배상문은 7번 홀(파3)까지 보기만 3개가 나오는 바람에 일찍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2009년 초창 선수로 이 대회에 나와 컷 통과에 실패했던 배상문은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어제까지는 생각대로 풀렸지만 오늘 최종 라운드라 그런지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1타 차로 쫓기던 15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2타 차로 달아나며 큰히기에 성공했다. 시즌 첫 대회였던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공동 9위에 이어 2주 연속 좋은 성적을 냈다.

'만행' 최경주(42·SK텔레콤)는 이날 버디 3개를 잡았으나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에



"바로 이맛이야"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마지막날 경기에서 준승 와그너가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발목을 잡혀 1타를 잃었다. 최종합계 4언더파 276타로 공동 38위다.

/연합뉴스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만도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타이어, 휠, 경정비, 광택, 유리막코팅, 맥과이어스 3M,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분점)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트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